

우리나라 향토음식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

윤은숙 · 송태희*

서울보건전문대학 전통조리과, 서울보건전문대학 전통조리과 강사*

A Study of the Conciousness on the Korean Folk Foods

Un-Sook Yoon,*Tae-Hee Song

Dept. of Traditional Cuisine, Seoul Health Junior College,

**Lecturer at Dept. of Traditional Cuisine, Seoul Health Junior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about Korean folk food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400 students and answered by 289 in the college in Kyung-gi Do and Je-ju Do.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49.8% of the students had little knowledge about Korean folk foods, 36.7%, 12.8% and 0.7% of the subjects were answered 'know little', 'know somewhat', and 'know well', respectively. 2. This study revealed that 25.6% of students ate folk foods 'on a journey', 21.1% of subjects did 'normal times', and 20.4% of them did 'festival days'. 3. Students answered that they ate folk foods 3 or 4 times in a year mostly at home. 4. 96.5% of the subjects thought that Korean folk foods had to be succeeded, but 64.0% of the students knew about Kang-won Do folk foods, 34.3% of them answered correctly about Seoul folk foods, and 40.1% of them did Che-ju Do folk foods, and only less than 20% of them had an expert knowledge on the other folk foods. 5. The percentage of getting a correct solution was higher in men than women, majoring in foods than non- food relation, and taking a lesson in Korean folk foods than no lessons.

I. 서 론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으로 동쪽, 남쪽, 서쪽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압록강, 두만강으로 중국대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¹⁾. 그리고 기후는 대륙적인 기온에 계절의 배분이 뚜렷하고 강수량, 온도, 일조율에서 다면적 기후구를 이루고 있으므로 농업의 입지적 여건을 다양성있게 하였다²⁾. 그러므로 기후와 지세에 따라 고장별로 특색있는 생산물이 산출되어 각 고장의 음식이 발달하여 향토음식을 이루었다. 그러나 점차 교통의 발달로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들었으며 급격한 산업화와 핵가족화, 주부의 사회진출기회의 증가로 즉석식품과 가공식품의 상품화 등 식생활이 간편화 되어감에 따라 우리의 전통음식 특히 향토음식의 개념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와 제주도 일부 전문대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향토음식을 어느정도 알고 있으며, 성별, 식품관련 및 비관련 학생들, 그리고 향토음식수업 여부에 따라 향토음식의 인지도가 어느정도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금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의 전통음식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향토음식에 관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제주도 소재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1994년 5월부터 1994년 8월까지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400부를 배포하여 328부를 회수하였으나 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289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분석 방법

설문지의 구성은 향토음식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하여 향토음식 수업을 받은 여부와 가정의 음식을 만드는 기준을 물어 보았으며, 황³⁾, 강³⁾ 및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⁴⁾의 자료를 근거로하여 작성된 향토음식을 나열하고 어느고장의 음식인지를 알아보는 항목을 포함하여, 향토음식에 관한 인지도 및 향토음식을 만드는 때, 향토음식을 차리는 빈도, 향토음식을 먹는 이유, 여행시 그 고장의 향토음식을 먹는 여부 및 그 이유, 향토음식의 계승에 관한 의견 등 향토음식과 생활과의 관련성과 견해를 묻는 질문과, 성별, 나이, 학년, 전공, 본인의 본적 및 주성장지, 가족형태, 가정의 수입, 주거형태, 부모님의 연령 및 직업, 가족의 외식 빈도 및 주로 가는 음식점과 음식에 관한 지식을 얻는 방법 등의 일반 사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AS[®]를 사용하여 빈도별 백분율을 구하고, Chi-square(χ^2)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 및 음식에 관한 기초 사항

조사대상자는 향토음식과 지역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전국적인 고향의 학생들로 구성되도록 경기도와 제주도의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일반 사항은 남자 35명(12.1%), 여자 254명(87.9%)으로 여자가 많았으며, 연령은 18세~20세가 158명(54.7%), 21~25세가 119명(41.1%), 26~35세가 12명(4.2%)으로 주로 18~25세로 구성되었으며, 전공별로 구분하여 보면 식품영양과 전통조리과 등 식품관련과 학생이 199명(68.9%), 간호과, 임상병리과 등 식품비관련학과가 90명(31.1%)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1학년 학생이 27명(9.3%), 2학년이 262명(90.7%)이었다. 또한 형제순위는 첫째가 92명(31.8%), 중간이 102명(35.3%), 막내가 87명(30.1%), 외동이 8명(2.8%)으로 구성되었고,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247명(85.8%), 대가족이 42명(14.5%)으로 대부분이 핵가족이었다. 가정의 수입은 100만원 미만인 71명(24.6%), 100만원~150만원이 103명(35.6%), 150만원~200만원이 62명(21.5%), 200만원~250만원이 24명(8.3%), 250만원 이상이 29명(10.0%)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자의 종교는 카톨릭이 38명(13.2%), 기독교가 81명(28.0%), 불교가 49명(17.0%), 유교가 3명(1.0%), 기타가 118명(40.8%)이었으며,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65명(22.5%),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74명(25.6%), 양옥이 97명(33.6%), 반양옥이 16명(5.5%), 한옥이 27명(9.3%), 기타가 10명(3.5%)으로 대체로 현대식 가옥이 주를 이루었다. 향토음식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보이는 고향과 주성장지는 표 1과 같이 전국적인 분포를 나타내었으나 고향과 주성장지가 서울인 학생이 다소 많았다. 아버지의 경우 연령은 50~54세가 40.5%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대졸이상이 21.8%, 고졸이 42.9%였으며, 직업은 19.4%가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80.6%는 무직, 단순노동, 반숙련직, 숙련직,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경우 45세~49세가 41.2%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대졸이상이 7.1%, 고졸이 42.6%였으며, 직업은 가정주부가 63.7%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직이 10.4%,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은 3.4%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들 가정의 음식을 만드는 기준은 아버지가 52.7%로 가장 많았으며, 조사대상자들의 형제가 20.4%, 어머니가 14.5%, 조부모님이 6.9%, 기타가 5.5%로 주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이는 핵가족이 대부분인 조사 대상자들 가정의 식생활이 가장 중심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식에 관한 일반 사항으로 가족의 외식빈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거의 않함'이 35%, '1년에 한번'이 10.7%, '1년에 4번'이 22.1%, '한달에 한번'이 27.7%, '일주일

표 1. 조사자의 고향 및 주성장지(인원수, %)

지역	항목	조사자의 고향	조사자의 주성장지
서울		80 (27.7%)	160 (55.4%)
경기도		36 (12.5%)	47 (16.3%)
강원도		15 (5.2%)	6 (2.1%)
충청도		29 (10.0%)	12 (4.1%)
경상도		42 (14.5%)	8 (2.7%)
전라도		56 (19.4%)	24 (8.3%)
제주도		31 (10.7%)	32 (11.1%)
계		289 (100.0%)	289 (100.0%)

표 2. 향토음식을 먹는 시기, 장소 및 빈도수

상황변수	항목	빈도 (인원수)	백분율(%)
향토음식을 먹는 시기	집안경조	41	14.2
	휴일	19	6.6
	명절	59	20.4
	여행시	74	25.6
	평상시	61	21.1
	기타	35	12.1
	계	289	100.0
향토음식을 먹는 장소	가정	163	56.4
	향토음식전문점	40	13.8
	친지집	21	7.3
	향토음식본고장	38	13.1
	기타	27	9.4
	계	289	100.0
향토음식을 먹는 빈도	거의 없다	70	24.2
	1년에 1~2회	41	14.1
	1년에 3~4회	88	30.4
	1개월에 1회	46	15.9
	1주에 1회	9	3.1
	수시로	35	12.1
	계	289	100.0
향토음식을 먹는 이유	입맛에 맞아서	114	39.4
	재료를 구하기 쉬워서	12	4.2
	고향 생각에	20	6.9
	습관적으로	39	13.5
	기타	104	36.0
	계	289	100.0

에 한번'에 3.1%, '1주일에 두번 이상'이 1.4%로 대체로 1달에 한번 정도의 외식을 하고 있으며, 모[®]의 연구에서 가족의 외식이 한달에 1~2회가 42.0%, 1년에 3~4회가 23.3%와 비슷하였다. 외식시 주로가는 음식점으로는 한식집이 60.9%, 중식집이 13.5%, 양식집이 6.6%, 일식집이 2.8%, 분식집이 2.1%, 편이점이 0.3%, 기타가 13.8%로 주로 한식집으로 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

및 안⁷⁾의 연구 결과 가족 외식시 한식이 59.7%로 가장 많았으며, 중식, 양식의 순으로 조사 된 것과 비슷한 결과로 아직도 외식시 한식을 많이 이용함을 알 수 있

표 3. 성별, 전공별 및 향토음식수업과 향토음식의 계승여부의 관련성

구분	향토음식을 계승하여야 한다	향토음식을 계승할 필요가 없다	계	비고	
성별	남	34(97.14%)	1(2.86%)	35(100%)	x 2=0.043 N.S
	녀	245(96.46%)	9(3.54%)	254(100%)	
	계	279	10	289	
전공	전공	195(97.99%)	4(2.01%)	199(100%)	x 2=4.023 p<0.05
	비전공	84(93.33%)	6(6.67%)	90(100%)	
	계	279	10	289	
향토음식	수강	92(98.92%)	1(1.08%)	93(100%)	x 2=2.335 N.S
	비수강	187(95.41%)	9(4.59%)	196(100%)	
	계	279	10	289	

었다. 음식에 관한 지식은 수업을 통해서가 40.9%, 어머니에게서 34.6%, 잡지에서 5.9%, TV에서 5.5%, 조부모에게서 1.7%, 친지에서 1.0%, 아버지에게서 0.3%, 기타 10.1%로 주로 수업과 어머니에게서 음식에 관한 지식을 얻고 있었으며, 이는 조 등⁸⁾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주로 친정어머니 또는 시어머니를 통해 전통음식을 배운 반면 본 조사에서는 수업을 통한 전통음식에 관한 지식 습득의 기회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 중에서 식품관련과의 학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음식에 관한 지식은 주로 수업 또는 어머니에게서 받으며, 음식은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는 식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향토음식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조사대상자의 32.2%만이 향토음식에 관한 수업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토음식에 관한 인지도는 49.8%가 '거의 모른다'고 대답하였으며, 36.7%가 '조금 안다' 12.8%가 '보통이다', 0.7%가 '잘 안다'고 응답하여 반정도는 자신이 향토음식에 관하여 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이 등⁹⁾의 연구결과 전통음식에 관한 인식도가 '잘 알고 있다' 39.7%, '조금 알고 있다' 56% 보다 훨씬 낮은 실정으로 향토음식이 전통음식 중에서도 소홀해져 감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

표 4. 향토음식에 관한 인지도(인원수, 백분율 (%))

지역	정답	오답											총계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황해	함경	평안	잘모름	
서울	99 (34.3%)	-	24 (8.3%)	8 (2.8%)	6 (2.1%)	4 (1.4%)	10 (3.4%)	0 (0.0%)	9 (3.1%)	14 (4.8%)	11 (3.8%)	104 (36%)	289 (100%)
경기	59 (20.4%)	7 (2.4%)	-	6 (2.1%)	20 (6.9%)	13 (4.5%)	8 (2.8%)	5 (1.7%)	34 (11.8%)	14 (4.8%)	12 (4.2%)	111 (38.4%)	289 (100%)
강원	185 (64.0%)	2 (0.7%)	2 (0.7%)	-	3 (1.0%)	5 (1.7%)	0 (0.0%)	3 (1.0%)	7 (2.4%)	12 (4.2%)	14 (4.9%)	56 (19.4%)	289 (100%)
충청	47 (16.3%)	4 (1.4%)	12 (4.2%)	6 (2.1%)	-	28 (9.7%)	36 (12.4%)	3 (1.0%)	11 (3.8%)	10 (3.4%)	8 (2.8%)	124 (42.9%)	289 (100%)
경상	56 (19.4%)	2 (0.7%)	10 (3.4%)	12 (4.2%)	13 (4.5%)	-	80 (27.7%)	2 (0.7%)	5 (1.7%)	5 (1.7%)	4 (1.4%)	100 (34.6%)	289 (100%)
전라	52 (18.0%)	4 (1.4%)	4 (1.4%)	7 (2.4%)	13 (4.5%)	26 (9.0%)	-	16 (5.5%)	7 (2.4%)	6 (2.1%)	4 (1.4%)	150 (51.9%)	289 (100%)
제주	116 (40.1%)	2 (0.7%)	4 (1.4%)	2 (0.7%)	2 (0.7%)	10 (3.4%)	14 (4.8%)	-	7 (2.4%)	4 (1.4%)	4 (1.4%)	124 (43.0%)	289 (100%)
황해	30 (10.4%)	8 (2.8%)	11 (3.8%)	4 (1.4%)	26 (9.0%)	18 (6.2%)	16 (5.5%)	5 (1.7%)	-	12 (4.2%)	13 (4.5%)	146 (50.5%)	289 (100%)
함경	54 (18.7%)	4 (1.4%)	5 (1.7%)	22 (7.6%)	4 (1.4%)	5 (1.7%)	9 (3.1%)	8 (2.8%)	19 (6.6%)	-	42 (14.5%)	117 (40.5%)	289 (100%)
평안	32 (11.1%)	8 (2.8%)	5 (1.7%)	7 (2.4%)	4 (1.4%)	9 (3.1%)	7 (2.4%)	4 (1.4%)	18 (6.2%)	21 (7.3%)	-	174 (60.2%)	289 (100%)

표 5. 성별, 전공 및 향토음식수업 여부와 향토음식 인지도와의 관련성 (인원수, 백분율(%))

지역	구분	정답자	오답자	계	기타	
서울	성별	남	24 (24.24%)	11 (75.76%)	35 (100.0%)	$\chi^2=20.822$ $p<0.001$
		녀	75 (5.79%)	179 (94.21%)	254 (100.0%)	
		계	99	190	289	
	전공	전공	89 (44.72%)	110 (55.28%)	199 (100.0%)	$\chi^2=31.089$ $p<0.001$
		비전공	10 (11.11%)	80 (88.89%)	90 (100.0%)	
		계	99	190	289	
	향토음식	수강	60 (64.52%)	33 (35.48%)	93 (100.0%)	$\chi^2=55.753$ $p<0.001$
		비수강	39 (19.90%)	157 (80.10%)	196 (100.0%)	
		계	99	190	289	
경기	성별	남	14 (40.00%)	21 (60.00%)	35 (100.0%)	$\chi^2=9.401$ $p<0.05$
		녀	45 (17.72%)	209 (82.28%)	254 (100.0%)	
		계	59	230	289	
	전공	전공	57 (28.64%)	142 (71.36%)	199 (100.0%)	$\chi^2=26.626$ $p<0.001$
		비전공	2 (2.22%)	88 (97.78%)	90 (100.0%)	
		계	59	230	289	
	향토음식	수강	46 (49.46%)	47 (50.54%)	93 (100.0%)	$\chi^2=71.211$ $p<0.001$
		비수강	13 (6.63%)	183 (93.37%)	196 (100.0%)	
		계	59	230	289	
강원	성별	남	20 (57.14%)	15 (42.86%)	35 (100.0%)	$\chi^2=0.816$ N.S
		녀	165 (64.96%)	89 (35.04%)	254 (100.0%)	
		계	185	104	289	
	전공	전공	125 (62.81%)	74 (37.19%)	199 (100.0%)	$\chi^2=0.399$ N.S
		비전공	60 (66.67%)	30 (33.33%)	90 (100.0%)	
		계	185	104	289	
	향토음식	수강	72 (77.42%)	21 (22.58%)	93 (100.0%)	$\chi^2=10.697$ $p<0.001$
		비수강	113 (57.65%)	83 (42.35%)	196 (100.0%)	
		계	185	104	289	
충청	성별	남	10 (28.57%)	25 (71.43%)	35 (100.0%)	$\chi^2=4.430$ $p<0.05$
		녀	37 (14.57%)	217 (85.43%)	254 (100.0%)	
		계	47	242	289	
	전공	전공	42 (21.11%)	157 (78.89%)	199 (100.0%)	$\chi^2=11.004$ $p<0.001$
		비전공	5 (5.56%)	85 (94.44%)	90 (100.0%)	
		계	47	242	289	
	향토음식	수강	33 (35.48%)	60 (64.52%)	93 (100.0%)	$\chi^2=37.201$ $p<0.001$
		비수강	14 (7.14%)	182 (92.86%)	196 (100.0%)	
		계	47	242	289	

표 5. Continued

지 역	구 분	정답자	오답자	계	기타	
경 상	성 별	남	13 (37.14%)	22 (62.86%)	35 (100.0%)	$x^2=8.045$ $p<0.05$
		녀	43 (16.93%)	211 (83.07%)	254 (100.0%)	
		계	56	233	289	
	전 공	전공	55 (27.64%)	144 (72.36%)	199 (100.0%)	$x^2=27.914$ $p<0.001$
		비전공	1 (1.11%)	89 (98.89%)	90 (100.0%)	
		계	56	233	289	
	향 토 음 식	수강	45 (48.39%)	48 (51.61%)	93 (100.0%)	$x^2=73.870$ $p<0.001$
		비수강	11 (5.61%)	185 (94.39%)	196 (100.0%)	
		계	56	233	289	
전 라	성 별	남	9 (25.71%)	26 (74.29%)	35 (100.0%)	$x^2=1.609$ N.S
		녀	43 (16.93%)	211 (83.07%)	254 (100.0%)	
		계	52	237	289	
	전 공	전공	36 (18.09%)	163 (81.91%)	199 (100.0%)	$x^2=0.004$ N.S
		비전공	16 (17.78%)	74 (82.22%)	90 (100.0%)	
		계	52	237	289	
	향 토 음 식	수강	26 (27.96%)	67 (72.04%)	93 (100.0%)	$x^2=9.226$ $p<0.05$
		비수강	26 (13.27%)	170 (86.73%)	196 (100.0%)	
		계	52	237	289	
제 주	성 별	남	20 (57.14%)	15 (42.86%)	35 (100.0%)	$x^2=4.792$ $p<0.05$
		녀	96 (37.80%)	158 (62.20%)	254 (100.0%)	
		계	116	173	289	
	전 공	전공	100 (50.25%)	99 (49.75%)	199 (100.0%)	$x^2=27.199$ $p<0.001$
		비전공	16 (17.78%)	74 (82.22%)	90 (100.0%)	
		계	116	173	289	
	향 토 음 식	수강	52 (55.91%)	41 (44.09%)	93 (100.0%)	$x^2=14.203$ $p<0.001$
		비수강	64 (32.65%)	132 (67.35%)	196 (100.0%)	
		계	116	173	289	
황 해	성 별	남	7 (20.00%)	28 (80.00%)	35 (100.0%)	$x^2=3.961$ $p<0.05$
		녀	23 (9.06%)	231 (90.94%)	254 (100.0%)	
		계	30	259	289	
	전 공	전공	25 (12.56%)	174 (87.44%)	199 (100.0%)	$x^2=3.271$ $p<0.1$
		비전공	5 (5.56%)	85 (94.44%)	90 (100.0%)	
		계	30	259	289	
	향 토 음 식	수강	18 (19.35%)	75 (80.65%)	93 (100.0%)	$x^2=11.871$ $p<0.001$
		비수강	12 (6.12%)	184 (93.88%)	196 (100.0%)	
		계	30	256	289	

표 5. Continued

지역	구분	정답자	오답자	계	기타	
합경	성별	남	7 (20.00%)	28 (80.00%)	35 (100.0%)	$x^2=0.045$
		녀	47 (18.50%)	207 (81.50%)	254 (100.0%)	
		계	54	235	289	N.S
	전공	전공	38 (19.10%)	161 (80.90%)	199 (100.0%)	$x^2=4.577$
		비전공	16 (17.78%)	74 (82.22%)	90 (100.0%)	
		계	54	235	289	N.S
향토음식	수강	24 (25.81%)	69 (74.19%)	93 (100.0%)	$x^2=4.577$	
	비수강	30 (15.31%)	166 (84.69%)	196 (100.0%)		
	계	54	235	289	$p<0.05$	
평안	성별	남	10 (28.57%)	25 (71.43%)	35 (100.0%)	$x^2=12.384$
		녀	22 (8.66%)	232 (91.34%)	254 (100.0%)	
		계	32	257	289	$p<0.001$
	전공	전공	30 (15.08%)	169 (84.92%)	199 (100.0%)	$x^2=10.398$
		비전공	2 (2.22%)	88 (97.78%)	90 (100.0%)	
		계	32	257	289	$p<0.001$
향토음식	수강	22 (23.66%)	71 (76.34%)	93 (100.0%)	$x^2=22.051$	
	비수강	10 (5.10%)	186 (94.90%)	196 (100.0%)		
	계	32	257	289	$p<0.001$	

성을 알 수 있었다. 향토음식을 먹는 시기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여행시 25.6%, 평상시 21.1%, 명절에 20.4%, 집안 경조사때 14.2%, 휴일에 6.6%, 기타가 12.1%로 향토음식은 여행시와 평상시, 명절에 많이 먹으며, 1년에 3~4회 정도 가정에서 주로 만들어 먹으며, 향토음식을 먹는 이유는 '입맛에 맞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여행시 향토음식을 먹는다는 사람은 73.7%였으며, 그 이유는 '그 지방 특산물이기 때문에'가 36.7%, '호기심에서' 24.6%, '맛있을 것 같아서' 16.3%, '쉽게 접할 수 있어서' 8.7%, '기타'가 13.7%로 나타났다.

향토음식의 계승여부를 묻는 질문의 결과는 표 3의 결과와 같이 '계승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96.5%, '계승할 필요가 없다'가 3.5%로 대부분이 계승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향토음식 수업의 수강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계승하여야 한다고 대답하였으나, 전공별로는 식품관련 전공자가 비전공자에 비하여 계승하여야 한다고 답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또한, 향토음식이 계승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식생활문화의

계승 때문에'가 71.6%, '조상의 얼이 담겨서'가 15.2%, '재료의 보급이 쉬워서'가 4.2%, '자녀교육상'이 1.0%, '기타'가 8.0%로 대부분이 식생활문화의 계승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조 등⁸⁾의 연구결과 '전통음식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가 73.3%, 모 등¹⁰⁾의 연구결과 '고유음식을 계승해야 한다' 45.7%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보아 향토음식이 점차 소홀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이의 계승에 관한 인식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 향토음식에 관한 인지도

향토음식에 관한 인지도를 알아 보기 위한 질문에서 향토음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조사 한 결과는 표 4와 같았으며, 각지방의 음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도는 강원도와 제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과 경기도 음식은 20~34%의 학생들이 알고 있었다. 다른 향토음식은 10~20% 정도의 학생 밖에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조사 결과 향토음식에 대하여 반정도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각 지방의 음식을 정

표 6. 즐겨 먹는 향토음식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황해	함경	평안	잘모름	총계
빈도수(명)	32	14	17	17	23	67	29	2	2	1	85	289
백분율(%)	11.1	4.8	5.9	5.9	8.0	23.2	10.0	0.7	0.7	0.3	29.4	100.0

표 7. 가장 맛이 있는 향토음식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황해	함경	평안	잘모름	총계
빈도수(명)	31	14	7	12	18	112	18	0	4	1	72	289
백분율(%)	10.7	4.8	2.4	4.2	6.2	38.8	6.2	0.0	1.4	0.3	25.0	100.0

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강원도와 제주도, 서울음식을 제외하고는 20% 미만의 학생만이 제대로 알고 있었다. 특이할만한 사항으로는 경상도와 충청도음식을 전라도 음식으로 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황해도 음식을 충청도 음식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잘모른다는 응답이 모든 향토음식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체로 향토음식에 관하여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의 향토음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비율은 대체로 낮게 나타났으며, 변인별로 조사해 본 결과는 표 5의 결과와 같았다. 즉, 강원도 음식을 제외하고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향토음식에 대하여 알고 있는 확률이 유의적일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나¹¹⁾의 연구 결과 서양요리에 관한 인식 및 식사예법을 남성이 여성보다 '잘 안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던 것처럼 향토음식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으며, 식품관련전공자가 식품비전공자보다 유의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으며, 향토음식 수강자가 비수강자보다 향토음식에 관하여 유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토음식의 수강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향토음식에 관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즐겨먹는 향토음식과 가장 맛있는 향토음식

조사 대상자들이 즐겨 먹는 향토음식은 표 6의 결과에서와 같이 전라도, 서울, 제주도 음식을 많이 먹고 있었으며, 이들 지방의 음식을 즐겨 먹는 이유는 '접할 기회가 많아서'가 27.0%, '맛있어서'가 24.2%, '고향의 음식이므로'가 19.4%, '기타'가 29.4%로 자주 보는 음식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은 전라도 음식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각각의 음식이 맛있다고 대답한 이유는 '기호에 맞아서'가 29.8%로 가장 많았으며, '고향음식이므로'가 15.2%, '식재료가 풍부해서'가 13.1%, '간이 잘맞아서'가 11.1%, '특별음식이니까'가 2.8%였으며, '기타' 28.0%로 나타나 결국 기호에 맞는 음식을 가장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우리의 전통음식이 산업화, 현대화와 더불어 그 위치를 잃어가고 있어 향토음식을 정확히 아는 비율은 저조하였으나, 그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

었으며 향토음식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향토음식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향토음식에 관하여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의 중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IV. 결 론

향토음식에 관한 경기도와 제주도의 일부대학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은 49.8%가 '거의모른다'고 답하였으며, '조금안다', '보통이다', '잘안다'가 각각 36.7%, 12.8%, 0.7%로 반 정도의 학생만이 향토음식에 관하여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 향토음식을 먹는 시기는 주로 여행시에 25.6%, 평상시에 21.1%, 명절에 20.4% 등으로 나타났으며, 1년에 3~4회 주로 가정에서 먹으며, 향토음식을 먹는 이유는 주로 '입맛에 맞기 때문' 이라고 한다.

3. 향토음식의 계승여부는 96.5%가 '계승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로 각 향토음식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확률은 강원도 64.0%, 서울 34.3%, 제주도 40.1%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20% 이하의 학생만이 제대로 알고 있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식품관련 전공자가 비전공자보다, 향토음식 수업을 받은 학생이 받지 않은 학생보다 향토음식에 관하여 유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점차 잊혀져 가는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향토음식의 수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황혜성, 한복려, 한복진, 한국의 전통음식, pp. 134-141, 교문사 (1993).
- 조후중, 향토음식의 활성화 in '전통음식의 활성화 방안' pp. 59-73,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90).
- 강인희, 한국의 맛, pp. 389-488,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한국민속종합보고서(향토음식편) (1983).

5. SAS/Guide for personal computers, SAS Institute Inc., Cary, North Carolina (1989).
6. 모수미, '외식산업의 발달이 국민영양 및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부 연찬회보고서, pp. 99-115 (1986).
7. 안숙자, 서울지역대학생들의 외식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4(4), 383-393 (1989).
8. 조연숙, 홍상욱, 한재숙, 전통음식에 관한 도시주부들의 의식구조 조사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3(3), 282-291 (1988).
9. 이영남, 신민자, 김복남, 전통음식의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6(1), 71-81 (1991).
10. 모수미, 전미정, 백수경, 이수경, 패스트푸드의 외식행동에 관한 2차실태 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4(1), 83-93 (1989).
11. 나영아, 서양요리에 관한 인식과 조리법에 대한 기호도 조사,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 3(1), 51-59 (1993).